

##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

—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성향을 중심으로 —

탁원정\*

<차례>

1. 서론
2.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형상
  - 1) 감정적인 아버지
  - 2) 비상식적인 아버지
3.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형상의 의미
  - 1) 다양한 이름의 부성(父性)과 이상적 아버지상 모색
  - 2) ‘아버지 되기’의 통과의례, 자식 혼사
  - 3) 부권(父權)의 균열과 인간적 아버지의 발견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국문장편소설의 핵심 인물군 이면서도 기존 연구에서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던 아버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시도된 것이다. 남편이나 남성이 아닌 아버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이를 좀 더 집약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식의 혼사 과정이라는 특정 상황을 전제했다.

〈완월회맹연〉에서 자식의 혼사 과정에 나타난 아버지의 형상은 크게 감정적인 아버지와 비상식적인 아버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로는 자신이 배제된 혼사에 서운함을 드러내는 아버지(정삼), 자식에 대한 사랑 앞에 이성을 잃는 아버지(정염), 자식에 대한 사랑과 계모에 대한 효 사이에서 나약한 아버지(한제선)가 있고, 후자로는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만 고집하는 아버지(정삼), 혼사를

\* 평택대 초빙교수

통해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아버지(장헌)가 있다.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형상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아버지의 복잡다단한 조건이 다양한 부성(父性)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사적인 아버지보다는 공적인 아버지라는 이상적 아버지상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식의 혼사가 ‘아버지 되기’의 통과의례 기제로서,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질을 검증받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한 단계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상황에서 비교적 견고하던 부권(父權)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단되지 않은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의 모습은 국문장편소설의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유표화되는 상층 계층의 현실 속 아버지애 대한 기억과 이들의 바람이 만들어 낸 새로운 기억의 직조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아버지, 자식 혼사, 다양한 부성, 통과의례, 부권의 균열

## 1. 서론

17세기 <소현성록>으로부터 시작된 국문장편소설은 대부분 할아버지-아버지-아들 혹은 아버지-아들-손자라는 3대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작품마다 강조되는 세대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3대의 구조 속에서 공통되는 아버지라는 인물군이 국문장편소설의 핵심 인물군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sup>1)</sup> 이는 국문장편소설의 주된 향유층이 상층 여성으로 추정되

1)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母의 성격과 의미」,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양포 이상택교수 환갑기념논총)』, 집문당, 1998; 이지하, 「여성주체적 소설과 모성이 테올로기의 파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이은경,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어머니의 양상과 의미, 『개신어문연구』 21, 개신어문학회,

고, 작품이 상층 여성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작품들에서 여성 인물들이 주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sup>2)</sup>과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버지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sup>3)</sup>, 대부분은 작품 속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파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아버지가 부각되는 논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선희<sup>4)</sup>는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속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훈육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는데, 이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형상은 ‘아들에게 엄하지만 은근한 정 표현하는 아버지’와 ‘딸의 능력을 인정해 주고 교육하는 아버지’이다. 한길연<sup>5)</sup>은 <완월회맹연>의

2004;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김서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천상계의 특성과 의미 : 모자 관계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8, 한민족어문학회, 2014; 김서윤,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2)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士大夫家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3) 다만, 가장 혹은 가부장으로서의 면모 또한 그 속에 아버지의 존재가 자리하기에 광의의 아버지 논의로 포괄해 볼 수 있다. 정선희, 「특집: 고전소설의 주인공;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 - <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5.

또한 장인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용서대립담을 다룬 논의 역시 광의의 아버지 논의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 연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조광국,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의 용서대립담 고찰」,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4)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 한길연(2013), 위의 논문.

정인광이 폭력적 가부장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제의 희생양이라는 논의를 펼치면서, 그의 가부장제적 페르조나의 강박과 자기분열이 자식에 대한 애정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혜란<sup>6)</sup>은 <유효공선행록> 속 유연이라는 2대의 가부장이 효우한 군자형 인물이면서도, 가문의 번영이라는 이름 아래 아버지 유정경의 폭력성을 아들 우성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지영<sup>7)</sup>은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 속의 난폭하고 불인(不仁)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관계를 진단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폭력이 자식들에게 정신적 상처는 물론 각혈이라는 신체적 병증까지 초래했으며, 이 자식들의 ‘아버지 되기’를 아버지에 대한 방어 기제로 해석하였다. 탁원정<sup>8)</sup>은 <완월회맹연> 속에서 일정한 유형성을 띠는 여성 감금 양상을 진단했는데, 그 속에서 딸의 행실을 자신의 명예와 동일시하여 악행을 저지른 딸을 친정에 귀녕시킨 후 독살을 시도하는 소희량이나 양순과 같은 친정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국문장편소설 속 아버지는 대체로 폭력적이고, 아들과 딸에게 이중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국문장편소설 속 아버지의 일정 성향을 잘 드러낸 것이기는 하지만, 논의 대상의 한정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아버지라는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전제하에, 18세기에 창작,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어머니에 일정하게 대응하는 존재로서 아버지라는 인물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그간의 아버지 논의가 아버지 일반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개별적 아버지로 다루

6) 조혜란(2015), 위의 논문.

7)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8)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여성 감금」, 『여성문학연구』 4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어저 왔다는 점 역시 전제로 한다. <완월회맹연>은 18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 속에서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건 전개를 압도하는 대화나 심리 묘사가 나타나 아버지가 처한 상황과 입장을 다각도에서 섬세하게 포착하기에 유효한 텍스트이다.<sup>9)</sup> 또한 자식의 혼사 과정이라는 특정한 상황을 전제하고자 하는데,<sup>10)</sup> 이는 그 상황에서 남편이나 남성과 구분되고 변별되는 아버지의 면모와 목소리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 2.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형상

### 1) 감정적인 아버지

#### (1) 자신이 배제된 혼사에 서운함을 드러내는 아버지 : 정잠

정잠은 <완월회맹연>의 중심가문인 정부(程府)의 2대 인물로, 동생인 정삼과 함께 작품의 중심인물이다. 정잠은 첫째부인인 양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자 동생 정삼의 아들 정인성을 양자로 들이고, 아버지 정한이 살아있을 때 맹약한 대로 이빈의 딸인 이자염과 혼인시킨다. 이후 정인성과 함께 지냈던 남장한 한난소가 부마 한제선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함께 수학했던 한제선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정인성의 첩으로 허락한다.

그런 상황에서 안남, 교지 등지에서 도적이 창궐하자 정잠은 황제로부터 대원수를 제수받고 교지로 출정해서 7~8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

9)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본은 장서각본 180권 180책으로,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자병기 입력본을 활용하였다. 본문에서는 권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0) 이때 혼사 과정은 혼담이 오고가는 상황부터 혼인 직후의 과정까지를 말하며, 무엇보다 혼담이 두드러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이 정씨 부중은 한계선의 조카딸인 양일아 역시 정인성의 첩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양일아의 외할머니인 주태부인이 조카이자 정삼의 후처인 소교완과 합심하여 여러 모략을 짠 결과이다. 소교완에 대한 무조건적인 효를 보이는 정인성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상태에서 교지에 나가 있는 정삼 대신 정삼의 결정이 남았는데, 한계선이 찾아와 양일아가 자결을 시도하고 이로 인해 계모 주태부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전하며 간곡히 청하자, 정삼은 양일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고 양일아와 한난소를 같은 날 정인성과 혼인시키기로 한다.

한난소와 양일아 두 사람과의 혼인을 앞두고 정인성은 불고이취리는 죄책감에 교지에 있는 정삼에게 서찰을 보내고, 소교완에게는 한난소의 현구고례(見舅姑禮)만 치르고 양일아와의 예식은 아버지 정삼에게 알린 후 차차 거행하기를 부탁드린다. 그해 겨울 교지에서 정삼의 편지가 이르는데, 편지에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루어진 혼사에 대해 어머니와 두 딸에게는 하소연이, 정삼과 정인성에게는 책망과 질책이 담겨 있다.

희의 무릉 용우(庸愚)호미 즈식을 스랑홀 줄만 알고 ㄱ르치디 아닌 연고로 아비다려 니르디 아니코 장가 들기를 조곰도 어려이 녀이디 아니니 희(噫)라. 부즈 눈상(倫常)이 엇더호며 인눈 중식 엇더호관디 불고이 취(不告而娶)를 술연이 헝호니 혼 일을 드러 빅일을 스못출디라. 희이 이 글을 보므로브터 년상 처열호물 니괴디 못호옵느니 아비를 업손 것 ㄱ치 녀인 연후의 므스 일을 못호리잇가? 스스로 비한(背汗)이 침의(沾衣)호니 아이 형을 아디 못호고 ㄹ들이 아비를 아디 못호미 인간의 엇더호 일이니 잇고? 이 전혀 불초의 가제(家齊) 불업호고 교제(教弟) 훈조(訓子)의 업치 못호오미라. 몬져 즈정의 불초디죄를 밧좁고 타일 즈여제(子與弟)를 다스려디이다. 즈위 엇디 이 일을 엄금치 아니시고 저의 호는디로 브려 두시니잇고? 희이 허신방가(許身邦家)호야 집을 잇고 어버 거호니 엇디 스스로 가스를 권

년하리잇고? 우흐로 즈위에 성덕을 버라고 ㄱ온더로 ㄹ의 선처호를 밋고 아러로 년성을 크게 미뎃더니 즈위 ㅎ의 가스를 아른체 아니샤 디어 (至於) 년성이 아버를 ㄱ(歎)이고 장가 드는 디경의 ㅅ디 아니시고 ㄹ이 ㅎ ㄹ들의 여러 며느리를 어더 ㅅ즈천을 ㄱ약ㅎ미 ㅅ식의 남스를 조곰도 근심치 아녀 두긋거오므로써 ㅎ이 이시물 아디 못ㅎ니 이 엇던 일이니잇고? 년성을 미들 ㅅ 업스니 츠후 ㅎ의 ㅎ시 망유고 극ㅎ오리니 엇디 한심치 아니리잇고 년성이 비록 ㅎ의 ㅅ식이 되디 아냐 제 ㅅ식으로 이실디라도 ㅎ ㄹ을 조곰이나 ㅎ으로 아라 디접ㅎ미 이실진디 ㄱ디 또ㅎ 이역(異域) 텃애 (天崖) 아니라 명나라 산ㅎ오 녀편으로 조츠 삼일의 ㅎ번식 소식을 통ㅎ니 맛당이 의논ㅎ고 ㅎ일ㅎ 비어늘 잠간도 어러이 녀이미 업셔 이 곳 ㅎ의 ㅅ식이 아니라 내 ㅅ식이니 엇디 내 임의로 못ㅎ리오 ㅎ야 ㅅ전(自專) ㅎ를 관계히 아니 녀이니 이 엇디 ㅅ테의 부형을 공경ㅎ는 ㅎ실이리잇고 ㅅ히 년성을 ㅅ망치 못ㅎ오리니 불승 한심이로소니다.<완월회맹연> 권107)

정삼은 어머니에게 보낸 글에서, 먼저 정인성의 불고이취한 불효에 대해 하소연하고, 이를 보면서도 그대로 둔 어머니에게도 아쉬움을 표한 후, 동생 정삼이 정인성을 자기 자식으로 알아 임의대로 한 것이라는 억측까지 하며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삼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유사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아들 정인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거듭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한다.

정삼은 교지 출정 이전에도 영종황제가 오랑캐 마선에게 사로잡히자 북쪽 오랑캐 영토로 출정해 황제를 구하고 그곳을 진압하느라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 때문에 집을 비우는 상황에서 집을 그리워하는 회포는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교지 출정에서는 그런 회포에 더해, 자신이 집을 비운 상황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혹은 자신 모르게 이루어진 중대사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자로 삼은 정인성과 그 친아버지인 정삼의 관계에 대한 억측에 가까운 토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평소 집을 비우느라 가정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소외감과 양자인 정인성과 친부 정삼의 관계에 대한 소외감 등이 이 혼사 문제에서 터져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삼이 아들 정인성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성향은, 평소의 외향적이고 절제된 면모와 달리, 하소연과 분노로 일관하는 감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2) 자식에 대한 사랑 앞에 이성을 잃는 아버지 : 정염

정환의 종질(從姪)인 정염에게는 딸 정성염이 있는데, 정염은 평소 딸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으면서 반드시 범속하지 않은 뛰어난 사윗감을 얻겠다고 공언하던 바였다.

그런데 정염이 그토록 혐오하는 장헌의 아들 장세린이 정성염의 화상(畫像)을 보게 되고, 정성염을 재실로 들이고자 아버지 장헌에게 구혼하기를 청하게 된다. 장헌은 장세린의 장인 여원홍의 계교대로 장세린과 정성염이 서로의 화상을 신물로 나눠가졌다고 하는데, 이 말은 들은 정염은 노발대발하며 정성염은 그런 음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만일 그랬다면 자신이 딸을 죽일 것이라 한다. 그런 후에 즉시 아들 정인홍을 불러 장세린과 같은 용렬한 인물을 친구로 사귀어 누이에게 화를 입혔음을 책망한 후 심한 매질을 가하면서, 주변의 말리는 사람들에게 가슴에서 불이 나는 듯하니 말리지 말라고 한다.<sup>11)</sup>

11) 불초즈를 중치(重治)흔 후 녀아를 죽여 니 마음의 거림흔 거슬 업시호고 당가 탕즈의 음일흔 바라를 끄쳐 이 분을 만일이나 풀니니 나의 심홍(心胸)의 불이 니는 닷 흐거늘 현테 었지 이 마음을 모로고 브절업시 말니기를 슈고로 이 흐느뇨? (<완월회맹연> 권56)

정염은 정인홍을 매질하고도 분노를 참지 못해 실제 독약을 가지고 정성염에게 간다. 본래 주변으로부터 유별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딸에 대한 자애가 남달랐던 정염은, 억울함을 씻을 길은 이것뿐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딸에게 독약을 건넨다.

이에 천만 억제하여 희음업시 흐르는 안슈를 거두며 정신을 진정하여 죄수로 소저의 등의 어로만지고 우수로 약을 드리 주며 왈, “여부 비록 잔협 불인하여 무릎 포악하나 식호 샷기를 앓기고 조슈(鳥獸)도 샷기를 사랑하느니 니 어이 금슈만 못하여 나의 천금 농주(弄珠)를 살학코즈 흐리오마는 여명(汝命)이 험조(險阻)하여 허실간 흉열이 여츠하니 천지의 즈옥홀시 여뵈(汝父) 억만지통을 품고 스약(賜藥)하느니 오아는 순종하여 니세외나 다시 부네 되여 금세의 원역한 지통을 씨스리니 오히라 니 아히야. 널노 하여금 이에 미쳐노?” 언필의 약슈 뉴체(流涕)하니(<완월회맹연> 권59)

이때 상황을 다 알게 된 동생 정겸이, 정성염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장현의 행동이 모두 여원홍의 계략에서 나온 것이며 장현도 반성하고 있다고 하여 겨우 상황을 진정시킨다. 이후 정염은 장세린과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고 정성염을 폐륜(廢倫)하고자 하는데, 이를 알게 된 서태부인이 염려하자 정성염이 장성하면 혼인시킬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이처럼 딸 정성염의 혼사에서 보이는 정염의 모습은 말 그대로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이며, 이는 동생 정겸이 정염의 행사를 “쌀을 죽이려 하시던 바는 쏘흔 광부(狂夫)의 처시오”라고 희롱한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정부의 대표적 희담꾼<sup>12)</sup>이라고 할 만큼, 가족 간의 대화에서

12)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희담(戲談) 연구: 남성 희담꾼 ‘정염’과 여성 희담꾼 ‘상부인’ 간의 희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5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참조.

경직된 분위기를 푸는 역할을 했던 평소 정염의 성향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자식에 대한 사랑과 계모에 대한 효 사이에서 나약한 아버지 : 한제선

한제선은 영능공주의 남편으로, 정한의 생전에 그 문하에서 수학하여 정부 인물들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다. 계모 주태부인의 딸 한씨가 낳은 양일이를 12년 동안 친딸로 알고 기르고, 친딸인 한난소는 생사를 모르다가 정씨 부중에 가서 비로소 만나게 된다. 이에 정잠에게 한난소를 정인성의 첩으로 들일 것을 청하여 허락받는다.

이후 양일이가 정인성에 반해 상사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를 본 주태부인은 손녀를 위해 정부에 청혼하라고 압박한다. 효성이 지극한 한제선은 어쩔 수 없이 정부를 방문해 이 상황을 알리고, 본래 정인성과 혼인하기로 되어 있던 자신의 친딸인 한난소 대신 양일리와 정인성을 맺어 주기로 간절히 청한다. 이에 정삼은 두 사람을 함께 혼인시키기로 하고, 한난소와 정인성의 혼약이 먼저 이루어지 때문에 부인의 위치는 한난소가 양리보다 높은 것으로 정한다. 한제선은 매우 기뻐하면서도 딸 한난소가 혼인하지 않으려 고집부릴 것과 계모의 성격상 위차(位次) 문제로 사단이 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여, 정염으로부터 ‘졸직(拙直)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혼례일이 다가오지만, 한난소가 혼인에 뜻이 없어 자결할 마음까지 먹자, 한제선은 양리의 혼사 문제로 병을 얻어 쇠약해진 몸으로 그녀를 설득하다가 혼절한다. 한제선의 동생 한제필이 한난소의 불효를 꾸짖자, 한난소는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고 혼례를 치르겠다고 한다. 혼례일에 정인성이 불고이취라는 이유로 한난소의 현구고례만 받고 양리는 정잠의 허락을 받은 후로 미루자, 다시 주태부인이 한제선을 압박하여 교지에 있

는 정잠에게 양일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달라는 편지를 쓰게 한다.

싱녀의 혼인이 둔형의 명을 바드미 업시 텃보의 즈전흔 비라 하여 형이 용납지 아닛는다 하니 이 곳 즈데를 훈교하는 도리 맛당하니 쇼제 엇지 붓그러운 늦출 드러 말슴을 번득히리오마는 편친이 비우 초상하스 저의 일성을 그릇홀가 침식을 폐하시니 쇼데 비록 무상하나 망미(亡妹)의 얼골 일육을 엇지 도과즈 아니리오마는 형의 엄흔 노를 감히 쉼범치 못하고 제 느히 숨오 춘광이 저무지 아니하니 부부 호합(互合)이 맞분 비 아니라 형이 도라와 도용이 상회(相會)하여 은스틀 기다리는 비러니 편친의 뜻이 이곳치 착급하시니 글녃의 쇠모하스 더욱 심시 약히시민가 쇼제 학발 쇠피를 우러오미 촌심이 황황하를 니긔지 못하느니라. 쉼호나 뜻을 어귀올가 쉼야 갈녃 진경하여 천효와 박정을 다 하고즈 하나 츠시의 도드라는 쇼제 마음과 힘을 맞출 비 아니니 쉼야 마음을 어루만즈 근심하고 슬허하는 바의 쇼데 웅비지경(雄飛之慶)이 이곳치 쉬은지라. (중략) 쇼녀는 허하여 니 집의 머무러 츠싱의 늦거운 덩을 다하게 하고 싱녀를 스하여 둔문의 용납게 하고 현보의 상싱하는 날 작소(鵲巢)의 깃드리미 잇게 홀진디 쇼제 친의를 위열하고 망미의 일육을 신세 염네홀 비 업시 지하의 서로 보오 늦치 이실진디 쇼제 맛당히 함호(含湖) 결초(結草)히리니 원컨디 합하 티형은 홍량(洪量) 디도(大道)로써 구교의 도흔 낮출 고렘하를 복망이라(<완월회맹연> 권117)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한제선이 정잠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계모의 건강을 염려하고 죽은 누이의 딸을 걱정하여 정잠이 큰 도량을 베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들어 있으며, 이 편지를 본 정잠은 답장을 보내 양일아의 혼사를 허락한다.

한제선은 본인이 자인(自認)한 것처럼 본래 쾌활하지 못한 성향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자식 혼사 과정에서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부마리는 신분엔 어울리지 않게 정잠을 비롯한 정부 인물들에게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까지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 2) 비상식적인 아버지

(1)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만 고집하는 아버지 : 정삼  
정삼의 동생인 정삼은 공명과 부귀를 헛되이 여기고 도행을 수련하는 인물로, 공직 생활로 자주 집을 비우는 형 정삼을 대신해 정부를 이끌어 가는 인물이다. 쌍둥이 형제 중 정인성을 형 정삼의 양자로 보내고, 정인광은 아버지 정한의 뜻에 따라 장헌의 딸 장성완과 정혼시킨다.

이후 정국(政局)이 변하면서 정씨 가문이 실세(失勢)하게 되자, 장헌은 정인광과의 정혼을 없던 걸로 하고 장성완을 다른 명문가에 시집보내려 하다가 급기야는 황제의 후궁으로 보내려는 시도까지 하게 된다. 정인광은 누이 정월염 대신 여장을 하고 장헌의 첩으로 지내게 되면서 이런 정황을 모두 알게 되고, 뒤에 정부(程府)로 돌아와 이런 일을 다 알리고 장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들은 정삼은 그래도 장헌과의 교류를 끊지 않고 그를 감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처시 순수디왈, “당후빅은 소달 등으로 더부러 골육(骨肉) 갓스온 친위(親友)라. 당즈(長子) 창닌이 텃눈(天倫)을 단원(團圓)호고 달녀(姪女)를 취(娶)호여 사빅(舍伯)의 동상(東床)이 되오니 더욱 즈별(自別)호 뜻을 니를 거시 잇스리잇가만는 사빅이 노중(奴中)의 잠기이며 소달이 심협(深峽)의 못치여 세상을 쫓츠미 황양(黃壤)의 감치 아니 호오니 당지 생관(生貫)의 입막(入幕)호여 편친(偏親)의 우회(憂懷)를 위로치 못호는 비 지극호 한 이로디 혹즈(或者) 타일의 호 당(堂) ㄱ온디 모도이를 어들가 발아옵느니 이 바게 다른 뜻지 잇스리잇가? 석일(昔日)의 당후빅으로 더브러 즈녀를 밧고즈 언약이 굿스오 나 후빅이 술을 달기고 경신이 온전치 못호오니 그 스이 필연 이져 심각

지 못하리이다. 다만 소달은 미돈(迷豚)의 나회 습습을 그음하여도 타쳐 (他處)의 생각지 아니 하고 당가 규슈를 취하려 호읍느니 년숙이 엇지 므로시느니잇가?” 소공이 점두(點頭) 칭지(稱之) 왓, “현지(賢者)며 신지(信者)라. 녀빅의 덕양(德量)이여. 당으를 거두고져 호미 텃성지덕(天性之德)의 비로스미라.”(<완월회맹연> 권 27)

집안과 친분이 있는 소수가 찾아와 맹약(盟約)대로 정인광과 장성완의 혼약을 진행할 것인가 물었을 때도, 오히려 정삼은 장헌을 두둔하며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해 소수가 정삼의 신의에 대해 칭찬한다.

결국 아들 정인광을 속여 장성완과의 혼인을 성사시키는데, 이를 안 정인광이 장헌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장성완에게 자결할 것을 재촉하자, 정삼은 모든 정씨 공자들을 다 모아놓고 정인광을 엄하게 꾸짖고 매를 심하게 때린다. 이후로도 장헌을 대놓고 무시하는 정인광과 장헌의 편을 들며 정인광을 혼내고 책망하는 정삼의 대립 상황은 지속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인물들조차 정삼의 처사가 지나치다며 정인광의 편을 들어 준다. 특히 사촌지간인 정염은 정삼에게 자기 부모를 모욕한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장헌에게 마음과 정을 쏟아 무죄한 자식을 꾸짖고 용납하지 않는 것은 ‘불통’이라고까지 직설한다.<sup>13)</sup>

이처럼 정삼은 아들 정인광의 혼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지와 장헌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아들 정인광의 의사는 무시하거나 강제하고 있다.

13) 장헌에게 마음과 정을 보다 무죄한 자식을 미양 꾸짖고 쳐 용납지 아니시니 이 곳 불통호시미 아닌가 닌성이 무릉호고 쥬변업손 으히라 미스의 쓰으는 디로 홀 썬이오 스스 소견이 업스니 이를 스랑호시고 장시는 장헌지네라 편이호시니 붕우의 의를 두터이 호여 신을 굿게 호시니 쏘흔 취홀 일어어니와 마치 자식의 득실을 취호시지 자식의 괴로움과 아님과 도리를 출히며 아니믄 생각호시더냐? (<완월회맹연> 권113)

이는 여섯 차례에 걸쳐 벼슬을 마다할 정도로 강직한 면모와 일맥하면서도, 평소 도행을 수련하면서 정부의 어떤 인물보다 너그럽고 인자한 인물로 그려졌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만을 중시하며 이를 강제하고 고집하는 점이 정삼을 달리 보이게 한다.

(2) 혼사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아버지 : 장헌

장헌은, 정헌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세운 구빈관에서 구해 준 장합 부부의 자식으로, 장합 부부가 죽은 이후 정부에서 친자식처럼 길러졌으며, 성장한 이후에도 정부 바로 옆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는 인물이다.

정헌이 살아있을 때 장헌 딸 장성완과 정삼의 아들 정인광을 정혼시켰는데, 정헌이 죽은 이후 정국이 변하면서 정씨 가문이 실세하게 되자, 장헌은 정인광과의 정혼을 없던 걸로 하고 장성완을 명문가에 시집보내려 하다가 급기야 황제의 후궁으로 보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미인으로 변장한 정인광에게 노골적으로 “니 여아를 후궁으로 드러 마츨니 능능(隆隆)흔 부귀를 누리미 되랴?”고 물어 정인광의 조롱을 받게 되고,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가문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는다.

양학스 은광이 고평오디, “당축의 후궁 드러려 혼는 쌀이 아니 옛날 정년광과 정혼흔든 규슈(閩秀)나?” 덕시 왈, “당헌이 다만 혼 쌀 분이라 하니 규슈의 나이 인광과 상적(相適)흔디라. 필런 곳썸 정혼흔든 쌀을 이제 후궁으로 드러려 혼미로다.” 제양이 시로이 빈은 망덕하고 실신(失信) 비약(背約)흔들 분분이 쑤디 디며 양쇼져 등이 역시 헤편히 여기는 빗치 이시나(<완월회맹연> 권20)

이후 장헌은 아들 장창린 역시 혼약대로 정월염과 혼인하겠다고 하자 납패한 것도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반대한다.<sup>14)</sup>

정잠이 영종황제를 구한 후 영광스럽게 귀환하고 정인성 등이 급제하면서 정부의 권세가 돌아오자, 장헌은 놀라는 한편 불안해하면서 급격히 태도를 바꾼다. 무엇보다 정부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무상왕래하다가 정부의 실세 이후 가시나무로 단단히 막아두고 왕래를 엄금했던 협문을 다시 여는 장면<sup>15)</sup>은, 장헌이 권세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헌의 이러한 성향은 “당공의 부귀를 탐함과 위권(威權)을 취하는 추세(追勢) 비린지심(鄙吝之心)은 평생의 큰 병이 되어 잘 곳치지 못하는 지라”라고 서술될 만큼 고질적인 성향이지만, 실상 구빈관에서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자수성가해야 했던 그의 결핍된 상황과 밀접하다.<sup>16)</sup>

결국 장헌은 자식의 혼사를 통해 부귀와 권세라는 자신의 결핍된 측면을 해소하려 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자식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4) 당공이 문득 머리를 흔드러 왓, “넷날 주후(酒後) 광언(狂言)으로 우연(偶然)이 년닌(連姻) 결친(結親)키를 날너지나 피츠 납폐(納幣) 문명(問名)을 횡합과 다르니 죽히 니를거시 아니요. 진실노 치례(采禮) 문명이 잇셔도 이 시절(時節)의 저 집과 결혼하기는 안즈셔 참화를 부르미니 너도 괴이(怪異)흔 말을 남 듯게 말나.” (<완월회맹연> 권27)

15) 당공이 만만 횡열하여 만구(滿口) 칭스(稱謝)하고 이 밤을 각노와 년침(連枕)하여 니아의 지닌 후 명일의 정소저을 금거(金車) 옥륜(玉輪)의 즈기 친히 호형하여 바로 태운산 넷 가스(家舍)로 느아와 빨리 정부로 무상 왕니하던 협문(夾門)을 다시 열며 형극(荊棘)으로 긴긴히 막앗던 거슬 업시 하고(<완월회맹연> 권32)

16) “니 분디 스라 문호를 흥기(興起)하고 여등을 성취(成娶)하여 즈손이 계계 승승함을 보고즈 하였더니 너희 아버를 못견디도록 보치니 니 스라 므엇허리오?”(<완월회맹연> 권23) “이씨의 고관(高官) 중작(重爵)을 띄여 분주함을 나모라 하나 이 또 관중의 삼전(三戰) 삼주(三走)함 갖터여 비록 당(堂)의 친(親)이 지(在)치 아나시나 문호의 미약함을 슬허 향스(享祀)를 빗니고즈 허미오.”(<완월회맹연> 권26)

### 3.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버지 형상의 의미

#### 1) 다양한 이름의 부성(父性)<sup>17)</sup>과 이상적 아버지상 모색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성향은, 무엇보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단일한 조건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정삼을 비롯한 아버지들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면서 가문의 일원이고, 나아가 가문 외적으로 다양한 인간관계에 얽혀 있으며, 혼사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인간관계는 아버지들을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굴절시키거나 본래의 특정 성향을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정삼은 이미 한계선이 한난소를 첩으로 들여달라고 했을 때부터 친구 관계인 한계선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한 상태였는데, 이후 대원수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느라 집을 비운 상황에서 이번에는 친구 관계를 넘어 황제까지 개입하여 양일아와의 혼사가 성사되자, 평소와 다르게 집요할 만큼의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다.

정삼이 평소와 다르게 고집을 부리며 정인광을 너무나 엄하게 대한 것도 아버지의 유연과 장헌과의 교우 관계 때문이었다. 정염 또한 장헌이라는 인물을 혐오하면서도 집안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라 일정하게 관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인물이 당대의 세력가인 여원홍과 음모를 꾸며 딸 정성염을 모해하자 분노로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정부 외의 인물인 한계선 또한 부마라는 신분임에도, 딸인 한난소가 정

17)서양의 경우, 부성(fatherhood, fathering)은 대체로 도구적(instrumental) 역할과 정서(expressive) 역할 또는 생계부양자(provider)로서의 아버지와 양육자(nurturer)로서의 아버지라는 이분법적 관념을 가지고 구성되어 왔으며, 모성(母性)이나 어머니됨과 대응되는 부성(父性) 또는 아버지됨으로 정의될 수 있다.(정진성, 『한국사회 부성의 구조: 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페미니즘 연구』 9, 한국여성연구소, 2009, 81쪽.) 본고에서는 아버지의 성향을 주로 논하고 있으므로 부성(父性)이라는 표현을 쓴다.

부에서 남장한 채로 정인성과 수확한 일이 드러나자 정부에 머리 숙여 한탄소를 첩으로 들여달라고 간청한다. 또한 이후에는 계모와의 관계 때문에 조카이자 수양딸인 양일아까지 첩으로 들이는 상황에서, 군주인 한난소의 거취 문제로 황제의 개입이 이루어지자 구구절절한 편지까지 쓰게 된 것이다. 장헌의 경우는 유일하게 평소의 성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유독 자식들의 혼사마다 정부와 다른 권문세가 사이에 끼이게 되면서 부귀와 권세를 좇는 성향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처럼 가족 관계 이외에 학연이나 지연, 정치 성향 등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 놓인 아버지들은 관계에 따라 다양한 부성(父性)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주로 남편이나 자식과 같은 가족 관계에 집중되어 편폭이 크지 않은 모성(母性)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다양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지향을 보이는 아버지들을 통해 어떤 관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가 제시된다. 정부의 정잡이나 정삼은 자기 자식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가족 외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는 데 비해<sup>18)</sup>, 장헌이나 한계선은 자식과 거리를 두지 않고 가족 내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전자는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그려지는 데 비해 후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정잡이나 정삼의 모습, 곧 사적인 아버지보다는 공적인 아버지가 작품이 지향하는 이상적 아버지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18) 가문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배제된 혼사에 서운함을 보이던 정잡도 결국은 한계선이나 황실과의 관계를 위해 양일아의 혼사를 허락하고, 정삼 역시 자식과의 갈등을 지속하면서도 신의를 중시하면서 장헌을 두둔하고 포용하고 있다.

19) 이는 “아버지로서의 성공이 자식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못지않게 사회와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가에도 달려 있다”(루이지 조야,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은정 역, 르네상스, 2009, 17쪽.)는 지적과도 일맥한다.

## 2) ‘아버지 되기’의 통과 의례, 자식 혼사

자식의 혼사 이전까지, 정잠을 비롯한 아버지들은 자식을 낳으면서 아버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아버지로서 제대로 검증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본인들 역시 아버지의 자식에서 막 벗어난 초보 아버지들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닥친 어린 자식들의 혼사는 이들이 아버지로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이자, 아버지로서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객관적인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식되었던 혼사는<sup>20)</sup>, 권한인 동시에 잘 수행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잠에게 정인성이 두 첩을 들이는 혼사는, 아버지 정한이 정해준 정인성과 이자염의 순조로운 혼사 이후 자신에게 맡겨진 첫 번째 혼사로서, 어린 나이에 두 명의 첩을 동시에 들이는 것은 물론 음란한 행실이 드러난 여성을 들이는 것에 대한 외부 시선의 부담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자신이 돌아온 후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던 사안이다.

상세 즈참 니괴하야 유유히 답언이 날나디 못호고 공지 머리를 숙여 안식이 변호를 씨뒸디 못호니 뉘부인이 탄왈, “사태의 심스를 모로디 아닐 비어늘 엇디 능쇼(凌笑)호노뇨. 한시는 스세 버리디 못홀 비오 양시는 한후의 스정이 츠마 물니치디 못홀 비라. 계부 대인 허락호신 비니 비록 아야디 고치 못호여시나 엇디 불고이취(不告而娶)라 호리오?” **양덕식 쇼이 답왈, “저저 말씀도 유리 하나 슈인이나 츠혼을 숙뵈 아디 못호시니 불고이취라 말을 면호리잇가? 존계부 대인이 비록 허호시나 성네는 숙부 명교를 기다려 호미 도홀쇼이**

20) 한길연은 문제적 어머니의 대표적 유형이 딸의 혼사에 개입하는 어머니 유형이며, 현숙한 부인으로 묘사되던 어머니도 아버지의 ‘혼사결정권’에 반기를 드는 문제적인 행위를 한 이후 ‘식견 없는’ 어머니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길연(2007), 앞의 논문, 230~233쪽.

**다. 었디 그리 급히 호시느니잇고?**(<완월회맹연> 권105)

실제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 내부의 인물들은 두 명을 첩으로 들이는 문제에 대해 불고이취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를 주시 하던 외부 인물들은 불고이취이며 성급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삼은 편지를 통해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혼인하게 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하게 된다.

정삼의 경우도 외부적으로는 장헌이라는 문제적 인물과 사돈이 될 것 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가문 내적으로는 고집 세고 난폭한 자식을 혼인 과정에서 길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겹쳐져 있었는데, 정삼은 장헌과 정인광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그 둘의 관계를 개선 시켰다. 그런가 하면 정삼은 정부 인물들로부터 아들 정인광에 대한 사랑 이 박하고, 형 정삼이라면 것처럼 심하게 꾸짖고 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 는 일침을 듣자, 이를 시인하고 정인광을 불러들여 시침(侍寢)하게 하면 서 아버지로서도 한 단계 성숙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정염이나 한계선처럼 그야말로 딸의 생사가 달린 혼사에서, 정염 은 강렬하게 기 싸움을 하는 것으로<sup>21)</sup>, 한계선은 감정적 호소를 통해, 시 택에서의 딸의 입지를 확보해 주면서 아버지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장헌의 경우, 예외적으로 혼사 이전에 부귀영화만을 좇는 소인형 인간 에서 혼사 과정을 통해 비정하고 부끄러운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얻고 있 어, 검증을 통해 오히려 아버지 자질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장헌은 장성완의 얼굴 훼손 사건이나 장세린의 여씨 박대

21) 정염이 그토록 분노하며 정성염을 폐륜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업포를 놓았기에, 혼사 이후 마음대로 장부에 드나들 뿐 아니라 딸 내외를 정부에 보내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다.

상황 등을 거치면서 자신이 결정한 혼사를 후회하고 자식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혼사가 아버지로서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부권(父權)<sup>22)</sup>의 균열과 인간적 아버지의 발견

정삼은 일찍 세상을 떠난 1대 인물 정한에 이어 가장으로서 정부를 이끌어 오면서, 자식들은 물론 가문의 구성원 전반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이에 가문의 대소사는 기본적으로 정삼의 결정에 따르고, 영종 황제를 구하느라 북쪽 오랑캐 영토로 출정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하게 소식이 닿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로 집을 비운 상황이라도 소식을 전해 정삼의 지시에 따른다. 실제 정삼의 부인이자 악행의 주역인 소교완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나 소부에서 모두 정삼이 교지 출정에서 돌아온 후 그의 처분에 맡기기로 한다. 그런데 정인성의 두 첩을 동시에 들이는 혼사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가장인 정삼에게 허락받지 않은 혼인이라는 것은, 정인성이 이를 불고이취로 생각하고 사후에라도 아버지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보내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sup>23)</sup>

정삼은 딸의 오명을 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독약을 직접 건네주고, 이후에도 정성엄을 폐륜하겠다며 엄포를 놓는데, 이는 그 억울함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람들에게 용인되지 못할 혹은 지나친 행

22) 부권(父權)은 가장인 남성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써, 일반적으로 가장권이라고 부르지만, 본고에서는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 부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23) 상세 죄를 써나 태부인고 고하여 고평디, “쇼손이 불초 무상호와 불고이취(不告而娶)하는 죄를 디엇스오나 맞춘디 기망(欺罔)치 못홀 비오 임의 네를 일위시니 엄정의 실고(實告)호오미 죄 우히 죄를 디오디 아니호오미니 창두(蒼頭)를 금일 교디의 보니여 고코져 호읍느니 앙품(仰稟)호느이다.”(<완월회맹연> 권105)

동으로 인식된다. 한제선 역시 계모의 뜻을 어길 수 없어 딸과 조카를 동시에 정인성의 첩으로 들이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딸 한난소의 식음전 폐라는 시위에 직면하게 된다. 장헌의 경우도 장창린이나 장성완 같은 효성스러운 자식에게는 어떤 부권을 행사해도 순응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나머지 자식들에 의해 원망을 받고 시달림을 당하다 못해 심지어 자살 소동을 벌이기까지 한다.<sup>24)</sup>

이처럼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성향은, 그 외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권(父權)의 작동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부권에 대한 회의와 균열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sup>25)</sup>

동시에 이런 균열의 틈으로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자식 문제에서는 유연하고 관대하지만 자기 자식 문제에서는 경직되고 긴박되어 있으며,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거나 한없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혼사에 대한 욕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는 부권이라는 이름으로 재단된 아버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 아버지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6)</sup>

24) 당공이 역시 고흥(叩胸) 대곡(大哭) 왈, “즈식마다 부모를 원수로 아라 싱아구로의 호탄(昊天) 막디지은(莫大之恩)을 아지못흐며 권귀(權貴)의 위엄이 중흐를 씨닷지 못흐고 아버로 흐여금 함신흐는 망나(網羅)의 찌러지게 하니 이 엇지 즈식의 도리리오?” (<완월회맹연> 권23)

25) 정창권은 <완월회맹연>에서 대모인 서태부인이 권위적인 남성 가장을 모방하지 않고 가족애로 포용하거나 인자함을 잃지 않는 다른 가장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여성주의적 상상력과 연결시켰는데(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252~253쪽.), 바로 이런 서태부인의 다른 가장권이 부각되는 지점에서 부권의 균열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26)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바를 당부하는 글인 ‘계자(戒子)’류의 글에서, 표면적으로는 윤리 도덕을 표방하고 규범적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그 이면과 행간에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시킴으로써,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

#### 4. 결론

본고는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국문장편소설의 핵심 인물군이면서도 기존 연구에서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던 아버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시도된 것이다. 남편이나 남성이 아닌 아버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또한 이를 좀 더 집약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식의 혼사 과정이라는 특정 상황을 전제했다.

<완월회맹연>에서 자식의 혼사 과정에 나타난 아버지의 형상은 크게 감정적인 아버지와 비상식적인 아버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로는 자신이 배제된 혼사에 서운함을 드러내는 아버지(정잠), 자식에 대한 사랑 앞에 이성을 잃는 아버지(정염), 자식에 대한 사랑과 계모에 대한 효 사이에서 나약한 아버지(한제선)가 있고, 후자로는 자식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념만 고집하는 아버지(정삼), 혼사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아버지(장헌)가 있다.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형상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아버지의 복잡다단한 조건이 다양한 부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이상적 아버지상이 제안 혹은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자식의 혼사가 ‘아버지 되기’의 통과의례 기제로서, 이를 통해 아버지의 자질을 검증받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한 단계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상황에서 비교적 견고하던 부권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식의 혼사 과정이라는 특정 상황이 전제되었기에, 위에서 드러난 아버지 성향은 <완월회맹연>에 나타나는 아버지 형상의 일부에 해당

---

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은영,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조선시대‘戒子’類 考察-』, 『동방한문학』 65, 동방한문학회, 2015, 166쪽·176쪽.)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며, 그 의미 또한 <완월회맹연> 전반을 대상으로 수렴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부권의 균열이라는 측면은 <완월회맹연>의 가문주의 향방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sup>27)</sup>, 특히 작품의 중심 가문인 정부의 정삼과 정삼 형제에게서 보이는 부권의 균열은 작품 전반의 지향과 괴리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이들이 혼사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부권을 공고히 해 나간다는 점에서, 자식의 혼사 과정에서 보이는 부권의 균열은 부권에 대한 부정(否定)보다는 새로운 세대의 부권이 확립되는 과정으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29)</sup>

위와 같은 제한적 의미와는 별도로, <완월회맹연>에서 아버지들이 나름 개별적이고 다양한 편폭으로 존재하며, 자식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먼 존재가 아니라 자식의 주변에서 항상 함께 하는 가까운 존재라는 점은 보편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완월회맹연>을 포함한 국문장편소설의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유표화되는 상층 계층의 현실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sup>30)</sup>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묘지명, 행장, 유사 등의 공식적

27) <완월회맹연>이 상층 가문의 가문의식이 강조된 작품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며, 한길연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부모에 대한 효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86쪽), 가문의 식이나 효의 강조와 부권은 매우 긴밀하기 때문이다.

28) 이는 유사한 시기에 창작·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효공선행록>과 대조적이다. <유효공선행록>에서는 폭력적 가장의 대물림이 나타나면서도 이들의 가장권이 가문 창달이라는 지향 아래에서 전면적으로 미화되고 있다. 조혜란(2015), 앞의 논문, 175~178쪽.

29) 1세대 인물이었던 정한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부권을 지닌 인물로 형상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삼 형제라는 2세대 인물에게 와서 각각의 결점으로 절대성이 흔들리고 부권의 균열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두 형제의 부권이 통합되면서 다시 1세대 정한과 같은 절대적 부권을 확립해 가는 것이 작품 전체의 지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글쓰기에서 적극 재현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기억<sup>31)</sup>을 상상적으로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상층 계층이 바라는 이상적인 아버지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문 외적으로 여러 관계망에 놓인 상황에서 그 관계들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는 아버지는 상층 계층의 이상적 아버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딸의 억울함 앞에 이성을 잃는 아버지나 걱정으로 혼절하는 아버지는 혼인 이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친정아버지에 대한 바람이 만들어 낸 아버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그런 점에서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의 모습은 국문장편소설의 창작과 향유 과정에서 유표화되는 상층 계층의 아버지에 대한 실제 기억과 이들의 바람이 만들어 낸 기억의 직조라고 할 수 있다.

30) 한길연은 <완월회맹연>이 전주 이씨 창작이라는 것을 전제로 작품 속 주요 남성 인물들의 모델이 전주 이씨의 오라비 이춘제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특히 혼사와 관련하여 이춘제가 아들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장인에게 신의를 지키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길연(2005), 앞의 논문, 240~245쪽. 그런데 굳이 전주 이씨라는 특정 상황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의 모습은 행장이나 제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유독 딸을 사랑했으며 그렇기에 음녀 모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독약을 건네는 정염의 모습은, 18세기 사대부가 한 아버지의 제문에 담긴 딸에 대한 토로와 아주 흡사하다. 김현미, 「슬픔과 탄식 속의 지아비/아버지 되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242~245쪽 참조.

31) 강혜선, 「조선 후기 윤증(尹拯) 가문의 부의식(父意識)과 아버지 상(像)」,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 99~101쪽.

32) 정선희 역시 국문장편소설의 부모 자식 관계를 다루면서, 자애로운 아버지상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작품의 주된 독자였던 사대부가 여성들이 바라는 아버지상 또는 남성상이 투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정선희(2010), 앞의 논문, 189쪽.

## 참고문헌

- 강혜선, 「조선후기 윤증(尹拯) 가문의 부의식(父意識)과 아버지 상(像)」,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 75~105쪽.
- 김현미, 「슬픔과 탄식 속의 지아비/아버지 되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229~251쪽.
- 이은영,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조선시대‘戒子’類 考察-」, 『동방한문학』 65, 동방한문학회, 2015, 151~180쪽.
-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83~109쪽.
- 이현주, 「<완월회맹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88쪽.
-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士大夫家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147~176쪽.
- 정선희, 「특집 : 고전소설의 주인공 ;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 - <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6쪽.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9~200쪽.
- 정진성, 「한국사회 부성의 구조: 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페미니즘 연구』 9, 한국여성연구소, 2009, 79~111쪽.
-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245~270쪽.
-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5, 155~184쪽.
-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여성 감금」, 『여성문학연구』 4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46쪽.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285쪽.
-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223~267쪽.
-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여성 관련 희담(戲談) 연구: 남성 희담꾼 ‘정염’과 여성 희담꾼 ‘상부인’ 간의 희담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

고전여성문학회, 2012, 273~311쪽.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27~64쪽.

루이지 조야,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은정 역, 르네상스, 2009, 1~508쪽.

ABSTRACT

The Images of Fathers in Korean Full-length Novel *Wanwolhoemaengyeon*  
and Its Meaning

—With Emphasis on Traits Shown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Offspring's Wedding—

Tak, Won-jung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xamine the image of fathers, who are usually a major characters in Korean full-length novels yet relatively less highlighted than mothers, with emphasis on a Korean full-length novel titled *Walwolhoemaengyeon*.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offspring's wedding was the scene selected to unravel and focus on the characters of fathers, not husbands or men.

In *Walwolhoemaengyeon*, the images of fathers shown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offspring's wedding include a father who is disappointed by intended exclusion by his family (Jung, Jam), a father who forces his faith regardless of the offspring's opinion (Jung, Sam), a father who loses his mind due to his love toward the offspring (Jung, Yeom), a father who intends to fulfill his deficits through the wedding (Jang, Heon), and a father who is helpless between love toward offspring and respect for his stepmother (Han, Je Sun).

These images expressed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offspring's wedding display the paternal love with various complicated conditions to suggest or seek the ideal image of a public father, rather than a personal father. Next, the wedding of offspring is a rite of passage to 'become a father.' In this process, they can prove their qualities as fathers and achieve growth as fathers. Finally, the paternal authority that is relatively firm in all other situations cracks to expose the true characters of fathers with no tailoring.

The fathers in *Walwolhoemaengyeon* are the new quilts of memories

created by the upper class women based on their memories of fathers or husbands and their wishes for the ideal images of fathers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enjoying the Korean full-length novels.

**Key Words** Father, Children's marriage, various fatherhood, the rite of passage, Cracks in the paternity

논문투고일 : 2019.04.15
심사완료일 : 2019.05.13
게재확정일 : 2019.05.20